

금값이면 뭐 합니까, 수확할 과일이 없는데...

추석 대목 사라진 전남 농가 “냉해·긴 장마에 농사 망쳐” 한숨 수확한 과일도 상품성 낮아 제값 못받아...전남도, 대책 분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과일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남 과수농가들은 팔 과일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이상기후와 냉해, 긴 장마기간이 겹친 탓에 사실상 수확할 과일이 없는 실정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냉해가 발생한 전남지역 과수농가는 7604호(83.1%)로 피해면적이 4390ha(88.6%)에 달한다. 이어 6월부터 7월까지 지속된 장마에는 전남지역 과수농가 1217호(13.3%)에서 451ha(9.1%)가 피해를 봤다.

홍작에 따른 수확물량 부족으로 배와 사과 등 과일 값은 치솟고 있다. 지난해 2만 5000원이던 나주 배(7.5kg 기준)가 올해는 4만원으로 올랐고, 사과도 지난해 5kg에 2만원이었으나 올해 현재 3배인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광주·전남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추석연휴를 맞아 선물, 차례 등의 용도로 배, 사과(홍로) 등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나주시 금천면에서 55년째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시호(71)씨는 “최근 수확을 마쳤지만 팔 수 있는 배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예년 평균 배 수확량은 9만여개를 넘겼지만 올해는 최종 수확량이 4만3000여개에 그쳤다. 올 봄 냉해로 서리를 맞은 대부분의 배가 기형적으로 자랐고, 장마와 태풍으로 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파리들이 떨어져 상품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몇 년 사이 농사에 치명적인 최악의 환경으로 변했다”며 “피해를 줄이려고 영양제를 놓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배 농사를 접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11년째 장성군 북일면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

는 이기대(52)씨는 1년간 공들인 사과의 80%를 땅에 묻어야 했다. 올해 장마, 태풍으로 많은 사과가 낙과한데 이어 과일이 썩는 탄저병이 유행해 대부분 팔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매년 15kg짜리 상자 4000개 분량 홍로를 판매했지만 올해는 800상자만 수확했다”고 말했다. 1년 내내 이상기후가 이어지며 제대로 된 과실이 맺히지 않았고 그나마 수확한 과일도 품질이 떨어져 제 값에 판매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영하 3도에 달하는 냉해가 이어져 작과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4-5월 사이에 우박, 국지성 호우가 내렸고 지난 6월에는 광주·전

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장마가 시작됐다. 또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릴 뿐만 아니라 햇볕이 든 날이 유독 적어 과실이 제대로 열리기 도 전에 낙과하거나 과실 일부가 썩는 탄저병이 심화돼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 전남도에서는 전남지역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전남도는 농업기술원과 협조해 피해 작물별 생육 회복 방안 기술을 제공하는가 하면 직접보상으로 피해농가 9150호에 농약대금,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7억 1800만원을 지급하고 간접보상으로 학자금 면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문화전당에 보름달 안착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23일 야외 전시 행사인 ‘하늘풍경의 달안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치전원 1단계 합격자 돌연 ‘불합격’ 학교 측 “직원 실수로 입력값 잘못...합격자 바뀌어”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이 2024년도 신입생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를 하루만에 ‘불합격’으로 번복해 공신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대 치전원은 지난 22일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입학시험 1단계 합격자 54명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합격자 발표 안내 문자를 보냈다. 수험생 A씨는 이날 전남대 홈페이지에서 ‘1단계 합격’을 확인했지만, 하루 뒤인 23일 전남대 측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산 오류로 합격자가 잘못 발표됐다”고 불합격 통보를 했다. 현재 전남대 치전원 합격자 조회 사이트는 오류로 조회 자체가 안 되고 있다. A씨가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자 전남대 입학처 측은 “다른 불합격자 B씨가 이의를 제기해 이를 확인해 보니, 직원 실수로 입력값이 잘못됐었다”며 “입력값을 수정하고 보니 B씨가 합격하고, A씨는

탈락했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대 측은 구체적인 입력값 오류 내용이나 추가합격자의 점수 등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전남대 측은 변경된 합격자 명단을 바탕으로 25일 합격자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입력값을 잘못 써넣었다고 합격자를 번복한 시점에 합격자 명단은 공신력을 잃었다”며 “다른 수험생들의 점수는 제대로 입력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직원일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피해를 입은 수험생은 한 명이며, 당사자와 학부모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치전원은 2024학년도 총 38명의 원생을 선발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음주운전 직원 감싸기’에 간부 개입”

광산구 감사 처져 수사 의뢰 검토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특정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광산구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산구 부조리 익명신고 플랫폼인 ‘레드 휘슬’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에는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단 간부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비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지난달 공단측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지난 2020년 12월 공단의 A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징계 등의 처벌을 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일부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 일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직원의 ‘경찰 음주운전면허 조회 회신 문서’까지 폐기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 사안을 공단측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단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1

심에서 징역8개월에 징행유예 2년을 받은 피의자까지 승진시키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음주운전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환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근무시작 전 출근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해왔다. 당시 공단측이 발표한 근무시작 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출근한 직원이 2021년 32명, 2022년 5월까지에만 30여명에 달했다. 환경직 직원들의 경우 실제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포스코 부당하고 하청노동자, 영구출입정지 소송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영구출입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노조)는 지난 22일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41)씨에 대한 ‘포스코 영구출입정지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소극적·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닥 표면 결함 제거 등을 맡아온 A씨는 “작업현장을 촬영해 개인 메일로 발송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23일 포스코로부터 인사 조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는 A씨를 징계고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를 주장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12월 부당하고 판정을 내리고

A씨에게 복직 구제명령을 했다. 중노위 역시 올해 3월 부당하고 판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A씨가 아직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포스코 측이 올해 1월 6일 영구출입정지 유지통보를 했고, 하청업체 측은 1월 9일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면서도 영구출입정지 해지 전까지 자택 대기명령을 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하청업체는 포스코의 조치를 핑계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며 자택 대기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초등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A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포스코의 위법한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일을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